

긴급 조치 등 아동학대 처벌 강화... 신고건수 30% 늘어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한달
아동전문기관 확대·지원대책 절실
학대사실 신고의무 위반 첫 과태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4주 동안 총 118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일 평균 신고건수는 42건으로 지난해 9·10월의 일평균 신고건수 32건, 31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셈이다.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권권제한 정치 등 경찰의 긴급 조치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 수위에 따라 경찰은 직권으로 ▲집으로부터 격리(1호)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보호시설·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화·전자우편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등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동시에 내린 사례도 있다.

지난 6일 부산연계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잡자는 아들(13)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자 발로 아들의 허리·무릎을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는 등 폭력을 휘두른 친부 A(34)씨에게 긴급조치 1·2·3호 조치를 내렸다. 이는 경찰이 조치한 긴급 임시조치 첫 사례다.

아내 김씨와 아들을 가정폭력 상담·지원 기관인 부산 웰스플렉스센터로 인계한 경찰은 A씨가 또다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친부 B(44)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제한 또는 정지하는 임시조치 4호를 지난 13일 신청했다. 이 역시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것으로 다음날 병원은 임시조치결정을 통해 B씨의 친권 중 일부를 정지했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위탁 신청사례도 있었다.

대전중부경찰은 자녀 3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친부에 대해 임시조치 6호(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위탁)를 지난 7일 신청했다. 이 남성은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의붓딸을 상습 폭행·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이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

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족으로 인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날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2곳. 전국 각 경찰서 수가 250여곳인 점을 고려하면 보호기관 1곳이 5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셈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한 직원은 “아동학대특례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의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 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부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등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 학적담당 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요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은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과태료 금액을 정한 뒤 해당 교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동구, 민·관 힘모아

‘따뜻한 겨울나기’ 총력전

저소득층 200세대 5천만원 지원

광주시 동구는 4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는 가정의 위기 가정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위기가정 및 사례관리 대상 200세대를 중심으로 기업체 등과 상호 연계, 보철(의치)·장학금·집수리·난방지원 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산 5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구는 또 저소득층 아동 800명에게 필독서 2400권을 구입,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초 구는 ‘행복동구 아이사랑’ 나눔 캠페인에서 저소득층 도서지원에 후원금 4000만 원을 모금했다. 구는 이달 초부터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전망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하고 이들 세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힘겨울 땐 ‘129’

보건복지콜센터 개통 9년째

상담건수 11만건으로 크게 늘어

보건복지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마련된 ‘129 보건복지콜센터’가 개통 9년을 맞았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총 970만건의 상담서비스와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 개통 당시 월간 상담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1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만 누르면, 시내 전화요금으로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긴급지원, 자살·학대, 응급의료 등 위기 대응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다.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 긴급복지지원, 아동·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 등 위기대응상담은 24시간 365일 연중 상담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콜센터 상담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129’를 더욱 더 알리고, 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중 학생회의 훈훈한 ‘이웃사랑’

알뜰장터 열어 수익금 전액 입양아동돕기 후원금 내놔

전남중학교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최근 학생회 자체적으로 알뜰장터를 운영해 번 수익금 전액을 입양아동돕기 등 후원금으로 내놓아 화제다.

4일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전남중 노정화 교사와 학생회 임원 등 8명이 지난달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를 방문, 가정을 찾고 있는 입양대상 아동들의 복지에 써 달라며 알뜰장터에서 번 수익금 63만1980원을 전달했다.<사진>

학생회는 지난달 22일 ‘제12회 건강플러스·건강한마당 축제’에서 알뜰장터를 연 뒤 운동화·가방·옷 등을 판매해 수익금 63만1980원을 벌어들였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 측은 입양아동 복지 및 보호아동 양육비 등에 쓸 예정이다.

박순자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장은 “어린 학생들이 직접 알뜰장터를 열어 번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전달받았는데, 그 어떤 후원금보다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보내준 후원금은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청소년·미혼·장애인·저소득계층·다문화가정 등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도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육,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